



보험회사의 중금리 대출사업 관련 고려사항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최근 중금리 대출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중금리 대출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될 경우 중금리 대출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여신시장을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기존의 고금리 이용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금리 대출시장은 긍정적이며, 중신용자 규모에 비추어 보면 중금리 대출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보험회사에게도 새로운 수익원일 수 있으나 중금리 대출수요자의 신용특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 요구자본 부담, 추심과정에서의 평판리스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말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고 있어 보험회사들도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라는 관점에서 중금리 대출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중금리 대출은 금리수준 10~15% 혹은 신용등급 4~7등급에 대한 신용대출임.
 - 은행의 경우 5~10%, 저축은행은 10~20%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음.
- 2015년 말부터 일부 은행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중금리 대출상품을 개발·출시하였으며, 지난 7월 5일 9개 은행이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 대출¹⁾을 출시함.
- 보험회사들 가운데 지난 2월 말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한 회사도 있고 일부 회사들은 중금리 대출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음.

■ 여신시장을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기존 고금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금리 대출시장은 긍정적이며, 중신용자 규모에 비추어 보면 향후 성장세가 전망됨.

- 중금리 대출시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중신용자들은 고금리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나,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에 따라 가계의 이자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1) 주요 대출 대상은 서민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이나 신용이 양호한 금융소비자, 그리고 사회초년생·연금수급자 등 상환능력은 있지만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임. 1인당 대출한도는 2,000만 원, 연 이자율 6~10% 수준이고 거치 기간 없이 최장 60개월 안에 원리금을 균등 상환해야 함.

- 금리구간별 신용대출비중은 금리 5% 미만 42.0%(잔액기준, 73.9조 원), 5~10%는 24.9%(43.8조 원), 15% 이상 28.0%(49.3조 원)이나, 중금리 구간인 10~15%는 5.1%(9.1조 원)에 불과함.
- 중금리 대출 수요자로 예상되는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들은 2015년 말 기준 698만 명으로 전체 금융소비자 1,498만 명의 47%에 이름.²⁾

〈표 1〉 금리구간별 가계신용대출 잔액 분포(2015년 3/4분기 말)

(단위: %)

금리구간	~5%	5~10%	10~15%	15~20%	20~25%	25%~
비중	42.0	24.9	5.1	14.9	7.5	5.6

주: 은행은 금리구간별 대출잔액자료, 여타 업권은 업권별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상호금융조합은 5~10%, 보험회사는 10~15%, 신용카드회사는 15~20%, 캐피탈·저축은행은 20~25%, 대부업은 25% 이상 구간에 포함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중금리 대출시장에의 진입 혹은 확대를 고려하는 보험회사는 중금리 대출수요자의 신용특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 요구자본 부담, 추심과정에서의 평판리스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확보할 수 있는 중금리 대출시장 잠재 고객들의 신용등급은 7등급 이하일 가능성이 큰 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³⁾
 - 은행은 금리 10% 내외,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신용등급 6등급까지 대출을 확대함.
 - 대출부실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보증보험이 결합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임.
- 신용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으로 경쟁 금융회사들보다 보험회사의 비용 부담이 큼.
 - 요구자본 산출 시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가 상향 조정되어 신용대출이 확대될 경우 요구자본 부담이 커질 것이고 보험회계제도 개정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도 있음.
-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부실대출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평판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보험회사가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용위험 평가 및 사후 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상품을 출시한 보험회사는 신용위험 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중금리 대출시장 진입으로 인한 기대수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kiri](#)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1. 28),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3) 신용등급은 부채수준, 상환이력, 고금리상품 과다이용 여부, 거래기간 및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됨. 신용등급 7~8등급은 단기연체경험이 있어 단기적인 신용도 하락이 예상되며 주의가 요망되는 등급이고,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리가 필요한 등급임(서울신문(2014. 2. 10), “한국은행 경제교육 경제칼럼”에서 재인용).